

광주대표 누각 '희경루' 156년 만에 재복원

내일 사직동 광주공원서 상량식

공정률 80%...10월 중 완공 예정

광주대표 누각 '희경루' (喜慶樓) 재복원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추진중인 희경루 중건사업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공정률 80%를 넘어섰다. 오는 23일에는 사직동 광주공원에서 '전라도 천년기념 희경루 중건 상량고유제(상량식)'가 열릴 예정이다. 상량식은 목조 건축물의 최상부에 종도리를 올려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량식에서는 건물 역사의 알 수 있는 상량문등이 봉

안될 예정이다. 희경루는 19세기까지 실존했던 광주대표 누각으로, 전라도 정도(定都) 천년을 기념해 광주공원 일원에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중층누각 형태의 희경루 중건사업을 진행 중이다. 희경루는 1430년(세종 12년) 무진군으로 강등된 광주목이 1451년(문종 원년)에 다시 광주목으로 복건되자 건립했던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이다. 신숙주(1417~1475)가 쓴 '희경루기'에서 '동방(東方)에서 제일가는 누'라 표현할 정도로 웅장했던 희경루는 1533년 소실됐다가 1534년 신축된 다음 또다시 1866년 완전히 사



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156년 만에 재복원 작업인 셈이다. 시는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가진 희경루를 중건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철저한 고증을 위해 희경루 중건 전문위를 운영해 왔고, 명종 때(1540년대)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희경루 '방회도(榜會圖·동국대 박물관에 소장 중인 보물 제1879호)'를 바탕으로 당시 모습 그대로 중건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표 누각으로 되살려 시민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1만6000곳 확대

광주시 1900여 곳서 8.4배 늘려...마그네틱→IC칩 카드로

광주시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전면 개선한 아동급식카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주)신한카드와 협약하고 아동급식카드 운영 등 시스템 개선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우선 가맹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900여 곳에 한정됐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별도 등록 절차없이 신한카드사의 가맹점과 자동 연계해 1만6000여 곳으로 대폭 늘렸다. 단점점이나 카페, 병과류업체 등 결식아동 급식 이용에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카드 디자인을 일반 신용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아동들의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고,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칩 카드로 교체해 그동안 단말기 결제 오류로 인한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존 꼬마카드를 새로운 급식카드인 1-꿈 카드(아이꿈카드)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교체 발급 기간은 23일부터 28일 까지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를 실시한다. 장구 혼잡 방지를 위해 홀수연도생은 홀수일, 짝수연도생은 짝수일에 배부할 계획이다. 기존 카드는 7월1일 이후 사용이 안되는 만큼 6월말까지 집행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용범 기자

호남 최초 국제주류 전시회 11월 광주 DJ센터서

전통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미향(味香) 광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호남권 최초 주류 전시회인 '광주 주류페스타'가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MBC, GBE(글로벌비즈마켓),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광주 주류페스타는 펀 시티(FUN CITY) 광주를 위한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전통주, 와인, 수제맥주, 소주, 기타 주류, 식품(안주), 주류 설비 등의 품목으로 구성되며,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려 광주 7미(味)와 지역 전통주 페어링 행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전통주품평회에서 수상한 주류들을 시음해볼 수 있는 기회와 나만의 술 빚기, 소믈리에 세미나, 예술단체의 야외공연 등도 진행된다. DJ센터 김상록 사장은 21일 "주류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펀 시티 광주를 위한 지역 대표 축제형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사인사

▲ 편집국 지역사회부 차장 김근호 (목표 주제) 2022년 6월 22일자



'누리호 성공 환호' 2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중계화면을 보고 있는 가운데 발사 순간 환호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시·자치구, 풍수해·폭염 등 자연 재난 대책 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대책회의 개최

광주시는 2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 협업부서, 자치구, 광주지방기상청과 합동으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을 위한 폭염·풍수해 대책회의'를 열고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재난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자

리토, 자치구 부구청장, 시 협업부서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올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감시해 기상특보 시에는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화되는 폭염에 대비

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462곳과 무더위쉼터 1550곳을 운영하고,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극락교-송정역 구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된 도로 살수장치인 클린로드시스템(4km)과 살수차 20대(19개 노선 273.45km)를 운영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따라 둔치주차장, 하천(도로), 지하차도 등에 현장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자

시교육청 이전 본격 추진...광산·서구 거론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 교육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가 현 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21일 이정선 교육감 당선자가 최근 시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를 다룬 데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타당성 여부와 사업비·이전 부지·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당선자의 현안 요청에 따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송영선 행정지원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 당선인은 "현 청사는 33년이 지난 데다 사무·민원처리·업무지원 공간 부족으로 늘어나는 교육요를 지원하는 데 한계를 노출, 지

난 10여 년 전부터 이전이 논의돼 왔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사 이전 TF가 이전 타당성·재원·후보지·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인수위에 보고하면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실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청사 이전 부지는 자체 유류부지·택지개발 또는 개발사업 예정지로 서구와 광산구 지역이 떠오르고 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최소 2만5000㎡ 이상이며, 지하1층 지상 6층에 직장 어린이집·교사센터 등 복합문화센터 개념이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청사 신축비 등으로 1000여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 5·18기념공간 조성 추진

민주·평화정신 계승할 랜드마크로 활용

전남도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평화정신을 공유·계승하고 전남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5·18기념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과 전남지역 5·18단체 대표, 각 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전남도 5·

18기념사업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5·18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에선 기념공간 조성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됐지만 전남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